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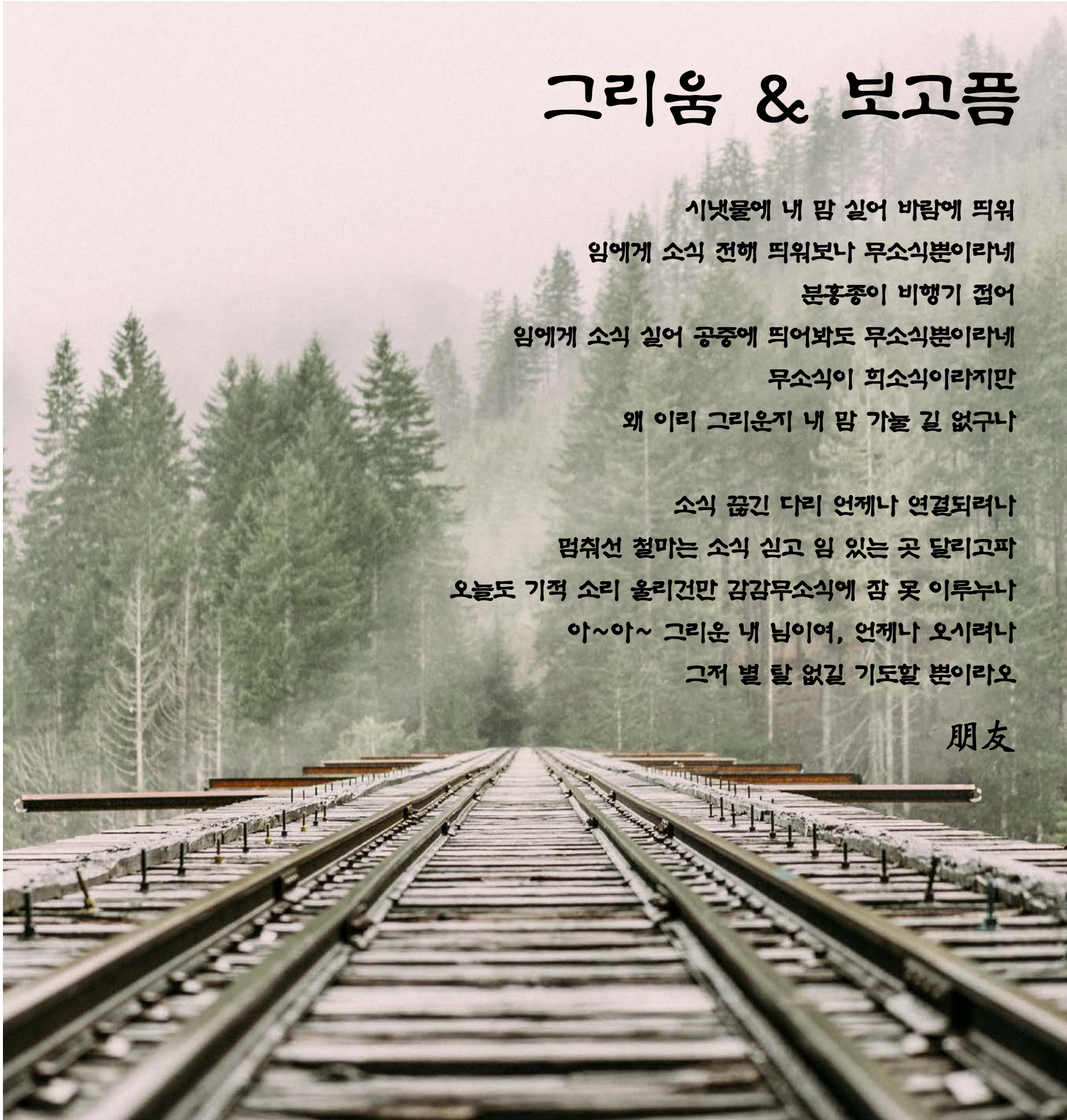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2월 26일 (제88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그리움 & 보고픔

시냇물에 내 맘 실어 바람에 띄워
 임에게 소식 전해 띄워보나 무소식뿐이라네
 분홍종이 비행기 접어
 임에게 소식 실어 공중에 띄어봐도 무소식뿐이라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왜 이리 그리운지 내 맘 가눌 길 없구나

소식 끊긴 다리 언제나 연결되려나
 멈춰선 철마는 소식 싣고 임 있는 곳 달리고파
 오늘도 기적 소리 올리건만 감감무소식에 잠 못 이루누나
 아~아~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시려나
 그저 별 탈 없길 기도할 뿐이라오

朋友

봉 우 컬 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 계시를 무시하지 말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대하20:15).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전쟁은 모든 자의 꿈과 희망과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겪은 세대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안다. 지금의 전쟁은 더욱 그렇다. 전후방도 없을뿐더러 핵이 터지면 순간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다. 그런데 다들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다. 이러다 말겠거니 한다. 그러나 아는가.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우리를 무시한다는 것을, 설마 설마하다 나라 잡힌다는 사실을.

가장 위대한 민족은 하나님을 기도로 움직이는 민족이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로 전쟁을 막아야 한다. 이 땅이 열강의 전쟁터가 돼서는 안 된다. 재래식 무기 폐기장이나 신무기 성능시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진다. 우리나라만 초토화될 뿐이다. 전쟁은 불바다, 피바다, 잿더미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여러분이 일군 재산, 배운 지식, 아름다운 가정, 다 전쟁 앞에 무너진다. 그러므로 전쟁만은 막아야 한

다. 우리 모두 합심 기도하여 이 위기를 타개하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방패요 의뢰할 분이니 어디서든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그 자가 최고의 애국자다. “주여, 이 나라를 버리지 마소서. 의인 열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 나라에 이루소서. 죽도록 충성하는 선교사와 주의 종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이 나라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을 주소서.”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0:1~16)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

지금 가로수를 보면 앙상한 가지만 보입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그 앙상한 가지에서 싹이 나고 곧 잎이 무성해질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구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당신 속에도 가능성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잠재력을 꺼내 쓰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에 매몰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살면서 한두 번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에 주눅 들고, 그것을 보완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일 그 자리요, 그 밤에 그 반찬인 것입니다. 또한 실패한 것에 매몰되어 머리를 뜯으면서 자학하다보니 전진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갈수록 성공과 멀어질 뿐이지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약점이 없어서, 그들은 단점이 없이 완벽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또 평생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했기에 성공자의 반열에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의 날개를 달고 훨훨 난 것입니다. 그들은 약점과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에 집중하라

세상은 약점이나 단점을 가진 자를 향해 “네 주제에~” 라는 말로 비하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눈도 안 보이는 주제에 뭘 해?”, “서자 출신이 뭘 해?”, “배우지도 못한 주제에 어찌겠다는 거야?”, “그런 인물로는 안 돼.”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완벽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약점이나 단점이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주저앉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베토벤의 경우를 봅시다. 그는 감성이 한창 무르익을 때에 청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청각을 상실한 상태로 그 유명한 교향곡 9번을 작곡했고, 이것 외에도 무려 25곡을 더 작곡했습니다. 그

는 들리지 않는 콤플렉스를 이겨내고 불후의 명곡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또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나 세계적인 문필가가 된 헬렌 켈러도 있지 않습니까? 파나소닉을 세운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허약한 육체와 가난, 무학(無學)이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 달렸고, 가난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더욱 도전하고 노력하여 13만 명의 계열사 종업원을 거느리는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냈다고 합니다. 고(故) 정주영 회장의 일대기도 전설처럼 젊은이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랑킨은 21세에 사업에 실패하고, 22세에 변호사 시험에 낙방하고, 26세에 애인의 죽음과 여러 고민으로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36세에 국회의원 낙선, 42세에 또다시 낙선, 47세에 부통령 지명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속적인 실패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불굴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 결국 52세에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볼까요? 입다는 서자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복형제들에게 학대와 조롱을 당하던 자입니다. 결국 본처 아들에게 쫓겨 집을 나서게 되는 비운의 사나이가 입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하지 않고, 약점이 있는 자들이나 잡류들과 힘을 기릅니다. 그랬더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삿11).

고아출신으로 왕비가 된 에스더, 술집 마담인 라합, 쓰리과부의 주범 나오미, 사람의 탈을 쓰고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시아버지와 연을 맺은 다말, 여섯 남자를 데리고 산 여인... 성경에는 약점과 단

점 투성이인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약점이나 단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어나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약점과 단점을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약점이나 단점은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돈에 약하다면, 이성

에 약하다면, 귀가 얇다면 그 단점을 인식해야 다시 넘어지지 않으니깐요. 그러나 그것에 놀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

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다윗은 여자에 약한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결국 충신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짓고 말지요. 그러나 그는 그 것에 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장점을 극대화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는 용맹함이 그의 장점이요, 수금 등에 능한 음악적 재질이 그의 장점이요, 시편에 주옥같은 시를 적을 수 있는 감각 역시 그의 장점입니다. 또한 우정과 의리가 있음이 장점이요, 자신의 잘못을 즉시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장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이슈타인은 학교에서 수학 외에 거의 모든 과목에서 낙제였습니다. 그런 그가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된 것은 장점이 수학에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남들보다 폐활량이 컸던 황영조는 그것을 살려 마라톤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장점이 강점되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리와 토끼와 새와 다람쥐가 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언제나 낙제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영과 달리기, 날기와 나무에 기어오르기 과목의 총점이 60점 아래이기 때문입니

다. 오리는 수영만 만점이고 다른 건 빵점이고, 토끼는 달리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새도 날기 외에는, 다람쥐는 기어오르기 외에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던 선생님은 결국 교육방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잘하는 것을 키워주기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장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자녀들에게도 그래야 합니다. 잘하는 것을 키워줘야 합니다. “너는 왜 수학을 못하니?” 라고 하지 말고, “너는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해주면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언니처럼 공부를 못하니?” 라고 하지 말고, “넌 언니보다 달리기를 잘 하는구나.” 이렇게 대해주면 아이가 바르게 잘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볼 때도 약점이나 단점을 볼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강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랑게 보이는 법, 약점만 보면 세상에 쓸 만한 사람이 없고,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장점을 보면 버릴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에 매몰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장점을 강점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점과 단점을 보완하느라 그것에 집중했다면 이제 인생 2막은 장점을 극대화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1:27~29).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싸우지 않고 이기기

자부심을 가져라

고려시대 서희 장군의 외교담판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세치 혀 하나만으로 강동 6주를 차지한 외교력이라 하여 국 사시험에도 곧잘 나온 것으로 기억된다. 서희 장군이 80만 대군의 요나라(거란) 소손녕을 돌려세울 수 있었던 힘은 정보력과 담력이었다. 비록 고려에 마음이 상한점은 있지만, 진정 그들이 원하는 것은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송나라를 먹는 것이었고, 송과 친한 배후의 고려가 불안했던 것이다. 서희 장군은 이런 상대의 본심을 간파하고 고려 온 조정이 거란 80만 대군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단기필마로 적진에 들어가 외교담판을 통해 거란의 대군을 돌려세웠을 뿐 아니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동 6주라는 압록강 동쪽 지역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서희 장군의 탁월한 정보력과 담력은 오늘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에 참으로 절실한 외교력이 아닐 수 없다.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정말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남북으로 갈려 서로 대치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정권은 지속적인 핵개발에 광분하며 우리뿐 아니라 가깝게는 일본, 멀리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이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장거리 미사일은 발사위치의 사전탐지가 어렵다는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보면,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이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몹시 우려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대

북 선제타격을 공공연히 외치고 있다. 국내적으로 반대세력으로부터 연일 공격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정부로서는 군사행동을 통해 국내의 시끄러운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를 하지 말란 법도 없다. 미국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행동에 손봐주기 차원에서조차 마찬가지 대응이 나올 수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문제 삼아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일본은 한미일 공조체제 확립을 바라는 미국을 등에 업은 채 자국의 군사행동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며 누적된 한일관계의 첨예한 문제들을 덮으려하고 있다. 무엇 하나 간단치 않은 오늘의 국제정세 속에 정말 탁월한 외교력이 발휘되지 않고는 이 땅의 평화를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트럼프 정부의 군사행동을 막아야 하고, 사드에 완강한 중국을 설득하는 한편, 중국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핵도발을 잠재울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 정말 온 촉각을 곤두세워도 시원찮을 판이다. 만약 미국의 선제타격으로 이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다. 목사님께서 온몸을 불사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때마다 시마다 기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시는 이유다. 지금은 갈등과 분열로 국력을 소모할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해야 할 매우 중대한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 성경에세이 ::

친정부모가 편한 거야!

여보게! 결혼한 여자들은 시댁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아무래도 시부모가 어려워서 그럴 거야.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들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더군. ‘시’자가 들어가서 그렇다나? 솔직히 시부모는 어렵지. 말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하니 편치는 않을 거야. 행여 시댁에서 밥상을 들고 가다 방귀라도 끼면 시부모가 인상을 찡그리며 버릇이 없다느니,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느니, 어떻게 친정에서 교육을 받았느니 할 것 아닌가. 그러나 친정부모는 좀 다르지 않은가? ‘숙이 안 좋았니? 이제 좀 숙이 편하겠다’ 라고 하겠지. 그래서 친정이 좋은 게야. 내가 괜히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비교하는 게 아니네. 이제부터 본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니 잘 들어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율법시대였네. 느김상 시댁에 산 시대였다고 할 수 있지. 구약의 하나님은 엄한 분이셨거든.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인상을 찡그리고 역정도 내시며 책망도 하는 분이셨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는 달라졌다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복음이었지. 정말

복된 소식이네. 억눌렸던 자에게 자유를 주신 거야. 마치 시댁에서 친정에 온 느낌 같아랄까. 자유가 보장되고, 용서가 있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대가 열린 거지. 친정 부모처럼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라네. 우리 누이들도 친정에 오면 따뜻한 방에 누워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복음시대가 그렇다네. 소나 염소를 잡아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있으면 되는 거라네.

여보게!

시부모 앞에서는 마음도, 또 어떤 상황도 숨겨야 할 것이 많지. 그런데 친정 부모 앞에서는 숨기는 것이 없이 않은가. 우리 누이들이 와서 어머니 앞에서 별별 이야기 다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숨기는 것이 없지만 (요15:15),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아릴 수 있게 되었지. 이런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더욱 열심히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나. 복음은 강요는 아니나 마땅히 받아들여 나를 복되게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게.

朋友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회사에서 어느 부서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고, 일의 만족도가 높은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 부서는 시설부로 보고되었습니다. 사실 시설부는 주로 전기의 배선이나 배수로와 같은 설비들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부서로, 첨단기술을 다루는 다른 부서에서는 시설부를 잡부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이런 시설부가 가장 높은 효율성과 만족도를 냈으니 다들 의아할 수밖에요. 임원진들이 이 비결을 캐더니, 그것은 바로 ‘자부심’이었습니다. 시설부의 모든 직원들은 작업을 할 때 외과 의사들이 입는 것과 같은 녹색 가운을 입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외과 의사와 같이 그들은 회사의 외과 의사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 부서 직원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폄하하든 그들은 껄껄치 않고

자기 부서에 대한, 또한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기 때문에 일도 더 열심히, 충실히 했던 것입니다. 자부심(自負心),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으로서 당신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 때 남들 때문에 식사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는 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없다는 것은 당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도나 매다는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 취급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 귀를 기울이세요 ::

최선의 예방책, 기도!

중국 춘추전국시대 ‘편작’이라는 전설적인 명의가 있었다. 그는 작은 병부터 큰 병까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여 유명하였다. 그 때 그의 소문을 들은 위나라 문왕은 편작을 만나 그에게 물었다. “그대와 그대의 형제들은 의술이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누가 의술이 가장 뛰어난가?” 이에 편작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큰 형님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에는 둘째 형님이며, 제가 가장 부족합니다.” 그러자 문왕은 의아해하며 편작에 다시 물었다. “그런데 어찌 편작 자네의 명성이 가장 높은가?” 편작이 문왕에게 다시 대답했다. “만형은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 전에 표정과 음색으로 이미 그 환자에게 닥쳐올 큰 병을 미리 알고 치료합니다. 환자는 만형이 큰 병을 치료해준 사실조차 몰라 명의로 세상에 이름을 내지 못했습니다. 또 둘째 형은 병이 나타나는 초기에 치료합니다. 아직 병이 깊지 않은 단계에서 치료하므로, 질환을 그대로 두면 목숨을 앗아갈 큰 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환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둘째 형도 명의로 세상에 이름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 저는 병세

가 아주 위중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병을 치료합니다. 맥을 짚어보고 침을 놓고 독한 약을 쓰고 피를 뽑아내며 큰 수술을 하는 것을 다들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제가 자신들의 큰 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알고 소문을 내다보니 저의 의술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잘못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두 형들을 칭찬한 편작의 겸손함보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한 형들의 의술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예배시간 두 시간 내내 전쟁이 나지 않도록 성도들을 기도시키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중심교회는 때마다 시마다 민족의 평화통일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잊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질병에만 예방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전쟁의 공포 앞에 기도로써 예방접종을 시키는 총회장 목사님은 편작의 두 형들만큼 명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중심교인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기도하고 예방하여 아름다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파리와 꿀벌

‘파리와 꿀벌’이라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파리와 꿀벌이 서로 꽃을 차지하러 신나게 싸우다 둘 다 날개 한 짝씩을 잃고 맙니다. 날개가 한 짝밖에 없어 날지 못하니 둘 다 먹이를 찾는 개구리에게 잡혀 연못 위에 갇히는데, 그 때까지도 서로를 원망하며 투덜거리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다 자신들을 잡아먹기 위해 돌아오는 개구리의 소리를 들은 파리와 꿀벌은 두려움에 서로를 꼭 부둥켜안고 벌벌 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로 뭉친 둘의 날개가 한 쌍의 날개가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고, 둘은 개구리의 손을 빠져나가 함께 큰 꽃송이에서 사이좋게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파리와 꿀벌’과 같은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가득하다 보니 불현듯 다가오는 전쟁의 위험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밋세바와 나단의 기록이 있습니

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선지자 나단의 눈에 다윗과 밋세바는 불의한 사람이었다고, 밋세바에게 나단 선지자는 자신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부끄러운 일을 만천하에 알렸고, 이 과정에서 첫아이의 죽음까지 겪었으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둘의 관계가 원만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늙어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자 내전의 조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상황에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의 도움으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포한 뒤 병마와 군대를 준비하며 내전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누빈 대장군 요압과 여호와의 제를 메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뒤를 지키고 있었으니 솔로몬의 왕위를 잇는 하나님의 뜻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밋세바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바로 다윗에게 나아가 아도니아의 일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진짜 왕이 되도록 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시금 다윗에게 나가 그 약속을 재차 확인하였고, 결국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나단, 군대장관 브나야를 불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위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를 계승하고 내전의 위험을 잠식시키기 위해 사적인 감정을 누르고 서로 협력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솔로몬 대의 성전건축과 이스라엘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념과 인간적인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부둥켜안고 기도의 날개짓으로 사탄의 위협, 즉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과 평화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전북 완주군에 사시는 차사순 할머니는 칠순의 나이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했는데, 무려 959번이나 떨어지고 960번 만에 합격하여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국내 언론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 등 해외언론에도 ‘의지의 한국인’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은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또 다시 치를 수가 있고, 사업도 한번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대학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여 최종판결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히9:27). 죽은 뒤의 심판은 단 한번뿐이며, 최종 판결입니다. 그 심판은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재판은 기일이 정해져있지만 우리네 인생은 시종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심판의 때를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 생활속의 잠언 ::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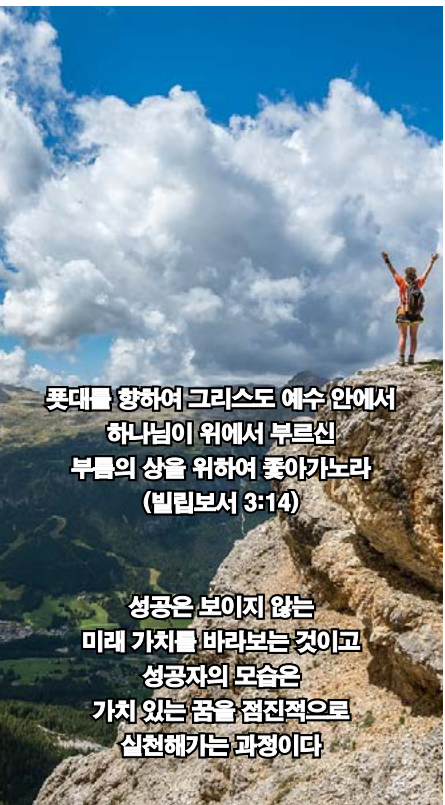
주님을 영접하고 삼십 여년의 세월이 흘러간다. 생각해보면, 주님과 따스한 첫사랑에 밤을 지새우던 그 시절도 사랑과 행복의 시간이었지만, 그때의 열정이 사라진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매순간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날 인도해주신다. 말이 쉽지,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골방에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나 역시 의무감이 아닌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는 데까지는 참으로 많은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했다. 그럭저럭 걱정 없이 살아가는 날들이 복이지만, 걱정거리 없는 시절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든다. 기도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 때로는 고통도 축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를 돌아보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굽으며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던 읍이 배

부른 왕보다 더 부요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억해보면 지난 나의 삶은 작정기도의 연속이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덮쳐올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뿐이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그렇게 시작된 작정기도만 해도 수십 번은 넘는 것 같다. 그러는 동안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 처음 교회에 나가서 집 팔아달라고 40일 새벽 작정기도를 마치는 날, 목사님께 “사실일 기도가 끝났는데 왜 주님은 제게 아무 말씀도 안하시나요?” 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목사님께서 주님은 마음 안에 계시니 조용히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하셨다. 그 이후 수년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썼지만, 주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았다. 이후, 예수중심교회에 출석하면서 성경공부를 열심히 다녔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후부터 주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

리기 시작하였다. ‘나’의 주님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때로는 묵상 중에 말씀과 함께 찾아오셨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님의 사자가 되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응답해주시는 때도 있었다. 얼마 전, 실명의 위기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였다. 목사님께서 전화를 해주셨다. “오자유, 네 눈은 잘 보일 것이니까 안 보인다고 뿌리지 말라.”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는 실의에 빠진 나를 찾아온 주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었다. 그날도 작정기도를 시작했던 날이었다. 작정하고 골방으로 들어가던 순간,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 덕분에 지금은 하루 6시간 이상의 수업을 거뜬히 하고 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품에 안고 천성 길을 향해 걸어가신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내면의 아름다움

요즘 ‘외모지상주의’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외모의 중요성과 함께 외모를 가꾸고자하는 태도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전한 정신과 함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신앙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면 25세 전후로 맞는 성장의 최고점 이후 모든 인간은 늙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 아름다움과 됬됨이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해야만 합니다. “겉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후4:16)는 가르침을 경청해야 합니다. 외적인 것을 중시하는 세상과는 달리 성경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인품, 매사에 긍정적이고 협력하는 자세, 양보에 인색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 고상하고 기품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아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고운 땀이나 태도를 지닌 여성에게는 ‘자태가 곱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고운 자태’와 ‘우아함’ 이란 표현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인품과 말씨, 행동, 눈빛, 지적수준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40세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타고난 모습과는 달리 40대 이후의 모습은 개인의 삶과 철학과 지나온 인생 역정이 반영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할 뿐 아니라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귀중한 것을 품었을 때 초라한 토기가 아름다운 보화(고후4:7)가 되듯이 말입니다. 영속할 수 없는 것에 많은 정력과 관심을 투자할 만큼 우리의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균형을 잃어버린 미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내면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립보서 3:14)

성공은 보이지 않는
미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고
성공자의 모습은
가치 있는 꿈을 점진적으로
실천해가는 과정이다